



감·사·가·넘·치·는·은·혜·의·삶



새생명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



제 1장 새 생명의 의미

하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기적인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도 기적이다. 예수님은 영적 탄생, 즉 성령에 의한 출생을 새 생명이라고 하셨다. 그것은 한 어린 아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므로 육적인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므로 영적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천로부터 돌이켜 새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의미로 영적 탄생을 희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로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 육적으로 태어날 다음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여 거듭났다고도 말하며,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면을 강조하기 위해 중생(regeneration)이라고도 말한다.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일은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변화하게 하는 시작으로 기적적인 사건이다. 인간의 육적인 생명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인간의 영적 생명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1. 창세기 2:7절이 말하는 사람(사람과 동물의 공통점)

* 흙(dust) + 생기(breath of life) = 생령(living being)

아담(사람) 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아다마(흙)에서 생긴 말이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 3:19)

* 만들다(form-2:7 make-1:26 create-1:27) =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이사야 45:9. 렘18:6)

사람과 동물 모두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심 (2:19, 1:21, 25)

* 생기(breath of life) 사람과 동물 모두가 같은 breath of life
를 가짐(1:30 욥33:4)

* 생령이란? 생물(1:20, 24)(living creatures)

히브리어로는 생령(사람) 이나 생물(짐승) 이나 같은 단어 사용

결국,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인간과 짐승은 너무 비슷하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

2. 창세기 1:26, 27절이 말하는 사람(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을 따라 지음 받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을 알 수 있
는 기관?

어쨌거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 절대
구분이 됨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

- 1) 땅을 다스리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칭지기적 존재)
- 2)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예배적 존재)

결국 인간은 단순한 living creature, living being이 아니라 하
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은 spiritual being. 이 말은 인
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단지 살아 숨 쉬는 것에
있지 않고(그것은 짐승의 수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 세상
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데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의 의미이다.

그런데 이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파괴되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몸과 피를 희생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로 만드심. 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제 1 사람(첫 창조) = 흙 + 생기

제 2 사람(재 창조) = 흙(육체) + 성령

- 1) 나는 새로 지음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 2) 첫 창조와 마찬가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재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 2장 새 생명의 필요성

생각하는 인간이 펴연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이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는 영속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철학이고 또 이러한 문제를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종교이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고 맞든 체계인 철학과 종교가 진정한 대당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대당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으신 것을 계시(啓示)라고 한다. 계시란 ‘드러내다’는 뜻으로, 기록된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인간의 근원과 결과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하여 바른 말해 준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인간의 기원, 천의 기원, 생명의 기원 등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한 기원을 아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다.

1. 사람의 두 가지 생명

1) 육신의 생명: 흙(dust)+ 생기(breath of life)=사람(생령-living being), 여기까지는 짐승과 동일

2)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영혼. 이것이 짐승과 차이점.

2. 거듭남(요 3장)

1) 니고데모의 신분이 무엇인가?(1-3,10)

2) 니고데모와 예수님간의 대화를 다시 구성해 보자. 좀 이상하지 않은가?

① 니고데모:

② 예수님:

③ 니고데모:

④ 예수님:

3) 니고데모는 무엇을 알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 왔는가?

4) 니고데모의 나중 모습

* 요 7:50/ 19:39

5)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하여 설명해 보자.

* 소극적인 면(3,16,17,18,20,36)

* 적극적인 면(3,4,16,17,21)

3. 죽음의 원인-죄

1) 하나님의 명령(창2:16-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2) 죄의 값은 사망(롬6:23)

- 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의 결과는 죽음.

3) 생명나무의 접근을 금하심(3:22,24)-이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는 나무에 속해 있었다.(2:16) 그러므로 선악과 먹은 후에라도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

* 생명나무 접근 금지는 저주인가 축복인가?

4. 죄의 결과

1) 육체의 죽음-영혼과 육체의 분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 : 27)

2) 영적인 죽음-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 창 3:8,23:

* 엡 2:1-3:

3) 영원한 죽음-육체의 죽음 이후의 심판(천국/지옥)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계 20:14)

4) 죽음의 증상-악과 고난. 내세(coming world)의 동시적 개념-“이미 그러나 아직”(already but not yet) 천국도 지옥도 미래(아직)만 아니라 현재(이미)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질병, 슬픔, 전쟁, 갈등, 자연의 파괴 등 죽음의 증상(symptom)까지도 죽음이다.

5. 새 생명이란?

1) 육체의 생명-한 번 죽는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함.

2) 영적인 생명-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3) 영원한 생명-둘째 사망 영혼의(영원한) 죽음을 이

기는 것(영생, 천국).

4) 죽음의 증상(symptom)을 이기는 것(기쁨, 평안, 행복)

6. 새 생명의 필요성

* 새로운 피조물(고후5:17)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 나도 새 생명이 필요한 사람인가?

제 3장 새 생명과 죄

1. 죄의 정의-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1) 허물 (Transgressions)-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 경계를 침범하는 것.

2) 죄 (Sins)-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2. 죄의 특징

1) 보편성-모든 사람이 죄인(롬3:23)

2) 죄급성 (불가피성, 죄의 성향)-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 인간은 늘 죄를 바라보며 산다.(재미있다. 먹음직, 보암직) 한번도 죄를 지어 보지 않은(원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다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라.

3) 급진성 (심화성)-누룩.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창3) → 가인과 아벨의 살인죄(창4장) → 라멕의 일부다처 죄-간음(창4장 후) → 동성애를 비롯한 죄악의 관영(창 6장-홍수 심판이 불가피) 점점 더 큰 죄를 향해 가게 되어 있다. 다윗-간음죄 → 살인죄

4) 파급성 (전염성)-다른 사람도 범죄 하게 만듦. 하와가 아담에게, 사비라가 아나니아에게.

5) 반복성-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만’, ‘딱 한 번만’. 한 번 범한 죄는 반드시 반복된다. 바늘 도둑은 예비(잠재적) 소도둑이다.

6) 파괴성-사망.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쾌락에 비해 그 고통이 너무 크다. 한 번의 쾌락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본

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 **사망**-육적 사망(미래), 영원한 지옥 사망(미래), 영적 사망(현재, 하나님과 분리된 삶)

3. 범죄 행위의 환경들

1) **외부적인 환경**-이 세상 풍속 (culture), 공중의 권세 잡은 자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2) **내부적인 환경**-육체의 욕심 (sinful desire)

악한 우리와 **악한** 사탄의 환상의 콤비.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man by nature)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4. 모든 사람이 죄인(롬5:12,19)

1) **원죄**-original sin, sinful nature. 자범죄 한 번도 안 범해도 죄인.

2) **자범죄**-actual sin.

대표 원리는 억울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이다. 예수님의 구속 혜택 또한 이 대표 원리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롬5:15-20) 죄도 한 사람(아담)으로 인해, 생명도 한 사람으로 인해. 이것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부르는 이유.

제 4장 새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에 대하여서도 알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것을 계시라고 한다.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여러 모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가 꼭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공의)과 사랑하심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면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를 범한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1.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이 무엇인지 다음 성경 내용을 통하여 설명해보자.

* 롬 1:18

* 마 5:21-28

2. 과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 롬 3:9-23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구원의 소망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추호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명예롭게 건질 수 있는 한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다 이해되지 않는 길이다.

3.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요일 4:9,19

4.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성육신)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 요 1:14

* 히1:1

* 빌2:5-8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죄인들을 받아 주신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 A. H. Strong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속(Atonement),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 (1)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2) 그러므로 구속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곧 죄를 그대로 묵인하지 못하는 성품을 충족시켰다.
- (3)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과 고난을 받으신 것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가 충족된 것이다.
- (4)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 (5) 이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6) 그러므로 사람들의 도덕적인 요구도 충족된 것이다. 즉, 죄에 대한 대가가 명예롭게 지불되었기 때문이다.
- (7) 구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나 이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받지 못한다.

5.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 시 42:1.2.5

* 시 23:1-6

제 5장 새 생명과 그리스도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민족의 해방자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국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었다. B.C. 6세기경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 계속하여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및 로마 등에 의해 압박을 당하였다.

이러한 압박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언젠가 구세주, 곧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지랴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구약 성경은 이런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였으며 신약 성경은 정확히 성취하였음을 증언한다. 동정녀 탄생 예언라(사 7:14) 성취(마 1:18-23), 탄생 장소 예언라(미 5:2) 성취(마 2:1), 고난 예언라(사 53:4-6) 성취(벧전 3:1), 배신 예언라(슥 11:12, 13) 성취(마 26:14-16), 십자가 예언라(시 22:1-6) 성취(막 5:21-36) 등이다.

1. 다음 구절들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마태, 누가가 각각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

* 눅 2:1-14

* 마 1:18-25

2. 다음 성경 구절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人性)을 가졌다고 설명하여 주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 그리고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 마 2:1

* 마 4:2

* 마 8:23,24

* 벰전 2:22/고후 5:21

3. 다음 구절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 요 1:1-3

* 요 1:14

* 요 1:18

* 요 1: 33-34

* 요 1:47-49

4.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보라.

* 마 9:12,13

* 눅 15:1-7

* 눅 19:10

5. 다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자신을 설명한 부분이다.

* 요 6:35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요 8: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요 10:7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 요 11: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요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하였는가?

* 요 6:14,15

* 마 11:20-24

* 마 16:13-17

7.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 마 11:25-27, 18:1-4

* 요 7:37 / 램29:12,13

제 6장 새 생명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된 것은 역시 그 아들을 직접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극치에 도달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롬5:8)고 말씀하셨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인되었다.

1.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1) 죄 때문에-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사망의 원인은 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보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대속)

2) 어떻게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갈(전가, Transfer) 수 있는가? 누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로 옮겼는가? (우리?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사 53:6)

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상태를 설명해보자

1) 재판에서 예수님의 죄가 발견되었는가?(눅 23:4)

2)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조롱을 받으셨는가?(막15:16-32)

3.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롬5:8, 10)

(장애아 입양 이야기, why me? 손양원 목사님, 짐 엘리엇)

4.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 주(중보자)가 되시는가?

*** 중보자의 두 가지 조건**

1)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인성)-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마리아)을 통해 나셔야 했다.

2) 그러면서도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한다(신성)-사람의 몸에서 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원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도 죄가 없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원죄 없으심) 그래서 “여인의 후손(단수)-남자 없이 여자만으로 태어나신 분”(창3:15)으로 오심

5.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못하시는 것이 없으신)이신데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시고는 우리 죄를 속할 수 없으셨는가?

*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 1) 사랑-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는 성품
- 2) 공의-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은 이미 죄인(?)이셨다. 그에게서 죄를 발견한 이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살려 두실 수 없으셨다. 따라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를 듣고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밖에 없으셨다.

6. 십자가의 양면성

- 1) 공의-아버지라도 아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죄의 결과가 무섭고 단호함.
- 2) 사랑-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까지 죄인을 용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아들이라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지독한 공의**와 죄인을 대신해서 아들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함께 나타나 있다.

제 7장 새 생명과 그리스도의 부활

1. 예수님의 십자가의 네 가지 그림 언어.

1) 제사

① 구약과 신약의 제사 비교

	구약	신약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님
제 물	흠 없는 짐승	예수님
횃 수	매년 반복	단 한 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히 9:12)

② 제사의 두 가지 기능 a. 죄를 덮음 b.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드림: 공의의 만족.

2) 화해(평화, 화평)

제사의 결과,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일어난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5:1)

3) 구속(자유)

죄와 사탄과 율법과 죽음의 노예상태로부터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2)

4) 새 언약-하나님의 백성 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무한한 자원을 상속.

2. 예수님의 부활

1)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① 예수님이 옳았음을 선포-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② 대속 물로 죽으심-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죄 없는 분으로 죽으심 인정.

2) 우리에게 적용

① 칭의

죄 사함은 십자가로, 그러나 칭의는 부활로. 죄 사함-상처 나음, 그러나 흉터 남음. 칭의(의로움)-흉터마저도 없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4:25)

② 죄 이김(롬6:6-8)

③ 부활

4가지 죽음(육체, 영적 단절, 지옥, 현재의 고통 곧 죽음의 증상)에서의 부활(해방)

3. 부활 후 지금 예수님은

1)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능력으로 세계를 다스리심(엡 1:19-23)

2)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마28:20 요14:16)

3) 기도하심(롬8:34)

제 8장 새 생명과 믿음

1. 구원의 방식: 믿음

1) 믿음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케 하는 수단(조건)

2) 믿음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마 16:16)-우리의 구주(구원자)가 되심.

3) 두 가지 종류의 믿음

(1) 객관적 믿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신 일(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2) 주관적 믿음: 뜨거운 눈물, 회개, 감격 등,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믿음.

* 이 두 믿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우선)할까?

- 기관차와 객차 비유-Fact 와 Faith

* 베드로의 신앙고백(마 16:16)과 죄인이었던 한 여인의 신앙고백을 서로 비교해자.

4)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과정

- 엡 2:8 () → 믿음 → ()

- 롬10:10 (마음-)→(),(입-)→ ()

5) 믿음의 효력-그리스도와 연합

(1) 그리스도가 하신 일 (What he has done)에 참여.

(2) 그리스도와 더불어(함께) 하나님의 아들 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

* 롬 6:4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합하여 장사 되었나니...

*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 롬 8:1-2

(불 탄 자리로 옮겨서라)

6) 왜, 십자가(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18-25)

2. 구원 사역의 과정

성부 하나님의 예정(엡1:4-5) → 성자 예수님의 사역 → 성령 하나님의 적용(믿게 하심-엡2:8-9) → 영접(믿음, 회개) → 성화 → 성령님의 지키심 → 완전한 구원(영화)

*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인가?

3. 왜 나를?

* 엡2:4-

성경 암송 5구절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2.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4-5)
3.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9)
4.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5.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하나님이 세상을

(원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최덕신 곡

하나님 이 세-상 을 이-치 려 사-랑하 사

하나님 이 세-상 을 이-치 려 사-랑하 사

독-생 자 를 주-셨 으-니 -

이-는-저-를-민-는-가-마-다 - -명-망-치-않-고

-영-생-을 - 얻-게-하-려-하-심-이-니-라

누구 때문에

송명희작사, 최덕신작곡

F F#dim Gm9 C7 Bb/F F Dm D7

누 구 때 문 에 — 주 님 심 자 가 지 셧 나 요 — 무 엇

Gm9 C#dim 1. Bbm/F F F#dim

때 문 에 — 주 님 어 못 박 히 셧 나 요 — 누 구

2. Bbm/F F Eb/F F7 Bb C/Bb Bbm7 C9/Bb

셧 나 요 — 나 를 위 하 여 주 님 심 자 가 를

Am7 Dm D7 Gm7 C7

지 시 고 — 나 의 자 랑 이 되 시 기 위 해 — 못 박 혀

Fm7 Gm7 Am7 Bbm7 Am7

죽 으 셧 으 니 — 심 자 가 를 — 지 신 주 님 을 — 사 랑

D7/F# Gm7 Gm7/C D7/C Gm7/C C7

함 나 다 못 박 혀 죽 으 신 주 님 을 자 랑

Gm7/F F F(add2)

함 나 다 —

오 예수님

고형년 작사/작곡

G Em C G

오 예수님 내가옵 니 다 못 박 혀
그 큰 사 랑 눈물 에 겨 워 울 며 울

Am 1. C G 2. C G

신 십자가 앞 에 돌아옵 니 다 주
머

Am G Am G

님 손 과 발 못 박 혀고 - 머 리엔 가시 관 박 혀셨 네

Am G C Dsus D

내 모든 죄 와 허물 위해 - 말 없 이 피 흘려 주셨 네

G Em C G

오 예수님 나의 손 잡 고 이제

C G C G

부려 - 영원까 지 내구 주가 - 되옵 소 서 어제

C G C G C G

부려 - 영원까 지 내구 주가 - 되옵 소 서

사랑의 주님

D G D A7

내 가는 길 거 칠 어 도 주 님 나 의 친 구 되 사
내 가는 길 고 달 파 도 주 님 나 의 힘 이 되 사

D G D A7 D

나 를 인 도 해 주 시 네 나 를 도 우 시 네 -

D G D A7

내 가는 길 캄 캄 해 도 주 님 나 의 빛 이 되 사
내 가는 길 멀 다 해 도 주 님 나 의 목 자 되 사

D G D A7 D

나 를 인 도 해 주 시 네 나 를 도 우 시 네 -

G D G D

어 두운 마음 들 오 세 요 우 리 주 님 을 만 나 요
가 난한 마음 들 오 세 요 우 리 주 님 을 만 나 요

G E A7

괴 로운 마음 들 오 세 요 우 리 주 님 을 만 나 요
외 로운 마음 들 오 세 요 우 리 주 님 을 만 나 요

D G A7 D

우 리 주 - 님 은 - 사 랑의 주 님 이 죠 -

973

부드런 그 음성



부드런 그 음성 너와 나를 부르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무엇이 어려워 주저하고 있는가



친구여 친구여 친구여



예수님께선 당신을 위해 멸시와



천대 받으셨네 - 친구여 주저 말고 돌아



와 - 언제나 기다리는 주님께